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 광양시, '백운산 고로쇠' 중요농업유산 등재 나서

## 주민수렴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올해 10번째 등재 목표로 추진



광양시는 백운산고로쇠농업을 올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 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통일신라 말기 고승인 도선 국사의 설화로 알려진 골리수의 기원이기도 하며, 200여 년의 역사와 전통과 함께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또 수분함량이 높은 토양과 해발 600~800m 고지대 계곡부와 수역 체취에 적절한 평균 일교차(10~15℃)를 보이는 기후조건으로 고로쇠 불맛이 달고 개운하며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리적 표시 라벨에 체취자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액을 마실 수 있도록 체취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위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0.5L, 1.5L, 4.5L PET 등 소포장을 선보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고로쇠로 만든 된장과 고추장, 간장, 막걸리를 특히로 개발하고, 각종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9 곳인 국가중요농업유산을 2022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에 맞춰, 환경과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백운산 고로쇠농업의 보전 가치를 판단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전작업으로 지난 1월 백운산 고로쇠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또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법인에서도 지난 4월에 회원들 간의 상호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시와 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법인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 신청을 위해 5월 4일 고로쇠 체취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이 확정되면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 받아 고로쇠농업 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허광영 고로쇠영농조합법인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고로쇠 체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백운산 고로쇠 농업이 올해 10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희권 산림소득과장은 "고로쇠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확정되면 농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유산 자원의 조사와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 연계상품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통한 백운산 고로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조합원 450여 명으로 구성된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법인에서는 백운산 고로쇠 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순천시립삼산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29일 개강

순천시립도서관은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 테마로 보는 세계문화 이야기 강좌를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7월31까지 진행한다.

이번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영화, 여행을 통해 세계문화를 배우는 강의로 총 3기 15회 강좌로 운영하며 강좌 접수는 홈페이지 및 진화를 통해 25일까지 기수당 8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첫 강좌는 '영화로 보는 세계문화'라는 주제로 그리스로마신화부터 르네상스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인문독서연구회 대표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한다.

두 번째 강좌는 역사여행가로 활동하는 권기봉 작가와 함께 '여행을 통해 배우는 근현대문화'라는 주제로 낮익은 여행지 속에서 낯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7월에 진행되는 마지막 세 번째 강좌는 우석대학교 박상익 교수와 '한눈에 펼쳐보는 중세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중세의 경제, 종교와 사상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시민의 인문학적

적 소양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다.

순천시립도서관에서는 인문독서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길 위의 인문학, 독서문화캠프,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sc.go.kr>)를 참고하거나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정책팀 (061-749-66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신소득 틈새작목 '토종다래' 적극 육성

## 화순군, 올해 1.5ha 시범도입



농가 신청을 마치고 10월경 묘목을 공급 식재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내육종 토종다래 13품종 중,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해연과 민수 2품종을 도입 보급할 예정이다.

이들 '토종다래'는 기존 참다래와 달리 과실크기가 4~20g으로 작고, 포피에 털이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소과류로 수확과 운송이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타피C 함량이 사과와 2배, 참다래의 3배 정도로 월등히 높고, 비타피B5 함량도 많아 세포의 노화방지가 열증억제에 효과적으로 생과나즙, 수액, 한약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포함 '토종다래'는 내한성이 강하고 보통 식재 후 3~4년차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5~6년차에는 10a당 2,000kg정도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 kg당 10,000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종다래가 지역의 신소득 명품브랜드 농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경영분석을 통하여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밝힌 뒤 "최근 간편 소비형 과실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고,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시간 절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토종다래' 보급은 소비자와 농가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으로서 향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순천시민대학 공개강좌 선보여

## 순천민국가정원·조례호수공원 등 5곳 야외캠퍼스로 활용



시민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순천시민대학'이 답답한 강의실을 벗어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현장에서 야외캠퍼스를 운영하며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순천민국가정원, 조례호수공원, 평생학습관 거울연못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명소 5곳을 '순천시민대학' 야외캠퍼스로 지정하여 활용하며, 시민대학 강사 및 수강생의

신청을 받아 매주 1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실내에서만 이뤄졌던 강좌를 오픈된 야외공간에서 진행함으로써 기존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즐거움과 유익성을 모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함이다.

최근 순천민국가정원으로 첫 공개강좌에 나선 '건강웃음교실'의 한 수강생은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강좌를 들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고 마치 봄소풍 온 느낌"이라며 만족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정된 야외캠퍼스 외에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강의장소를 선택하는 '찾아가는 순천시민대학 공개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또 추억의 가곡교실 강좌를 승주읍 한국가곡예술마을에서 지역민과 함께하여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는 순항 중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물동량, 일자리, 외국인투자금액, 매출액 등이 전년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물류기능 향상과 더불어 기타 부가가치 기능 등을 통해 광양항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광양항만공은 2018년 1분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컨' 화물 처리 물량이 93,927TEU를 달성했

다는 것.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9% 상승한 것으로 현 추세를 감안한다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2018년 총 컨 물동량은 38만TEU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기존의 동측배후단지(194만㎡), 서측배후단지(198만㎡)와 더불어 북측배후단지(11만㎡)를 새로이 조성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광양항 물동량 3억톤 시대를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형운 물류단지팀장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가 단순한 화물 수출입 물량 창출공간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복합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이바지 할 수 있게 다할 것이다"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물동량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암삼